



수행자들 고급 스포츠 관찮은가?

“일부 스님네들이 수행자의 본분을 벗어난 골프와 스키 등 호화스포츠를 즐기며, 수행보다 더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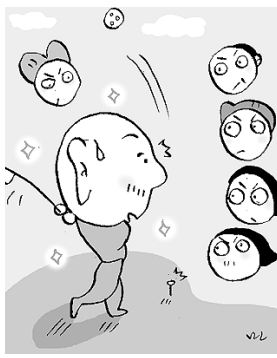
그러한 고급스포츠가 수행자의 품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란이다. 그러한 일은 율장정신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비구계를 말씀하신 사분율장(四分律藏)에는 비구가 포살(布施)할 때 일빈이 엿듣지 못하게 했고, 울고 그들을 가리는 갈마 때에도 그 내용을 알릴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구계가 아닌 사미 10계율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차라리 어려서움의 노예를 지지않고, 어찌 자리에 앉아 참선하며 삼의일발(三衣一鉢)로 계율을 배우는 공부의 끝에 재주를 부려 부처님의 계(戒)를 범하는 것이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의 할 일인가?” 라고 했다.

율장에는 골파다 스키다하는 고급스포츠를 꼭 꼭 짚어 말씀하신 것은 없다. 물론 당시에 그런 스포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있었다면 분명히 언급했어야 할 법한 것이다. 부처님은 “세속인들로부터 비난 받을 일을 무엇이든 금(禁)하라”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하면 “비구의 위위가 아니요, 사문의 법이 아니요, 청정한 행이 아니요, 수순하는 행이 아니며 응당할 바가 아니라” 하신 말씀으로도 알 수 있다.

시웃밥은 대단히 무서운 밥이다. 도둑은 일 외에 것은 응받되지 않는다.

“비난받을 일 무엇이든 금하라”

다. 그래서 방울물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구나 같은 지구에 사는 어느 나라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1년 동안의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스님네가 즐겨하는 고급 스포츠는 아무래도 지탄의 대상이 안될 수 없다.

부처님이 금하신 계율을 지키며 당당하게 사는 것이 수행자의 행복이다. 무엇보다도 수행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일이다.

“모두 불자가 할 바가 아니다. 도둑은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해서 어리석고 나쁜 악업을 길러 고해에 빠지게 하고 벗어날 때가 없다. 뜻이 있

종단살림 핵심은 ‘투명’

태고종, 종도대표 감사실시, 적극적 종무 주문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올해를 투명종단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각 교구 종도대표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6월 9일 본격 실시했다.



종도대표 14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월9일 태고종 총무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14명의 종도대표 감사위원들은 서울 신사동 태고종 총무원 청사 회의실에서 모여 감사일정과 운영방식을 논의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4층 총무처 행정직원들은 3일 전부터 준비한 각종 회계장부와 문서철들을 가지런히 책상위에 올려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감사위원들을 맞이했다.

감사는 교무부장 범연 스님의 2003년도 총무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동방대학교 대학 인수와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원(이하 불교전승관) 건립 추진 등의 사업보고와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한 재무분야 보고가 자세하게 이어졌다.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부총무원의 자운 스님은 “종단의 5부처 중심의 책임분과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쏟아 냈다. 업무에 대한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의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대부분 스님은 이번 감사가 재무분야에 국한된 소극적 감사가 아니라 종단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내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사업별 중핵 운영 과정에 대한 종도들의 의문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스님들은 이날 감사를 통해 그동안 총무원이 추진해온 (주)AMS 인수와 불교전승관 건립 추진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명확히 털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총무행정전산화 △사찰법 현실화 △종법에 따

큰 감사활동 △승려 의무금·분담금 징수 활동 등에 좀더 적극성을 띠 것 등을 지적했다. 감사결과 6월 15일 중앙총회에 보고하고 종단기관지에 주요내용을 게재하기로 했다.

이날 종도감사에는 월남, 도성, 원종, 효성, 자운, 범륜, 지관, 명진, 범운, 범우, 청봉, 종오, 일허, 성묵 스님 등 각 교구를 대표한 감사위원과 중앙총회 재무분야위원 스님 14명이 참가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일면·정도 스님 직능대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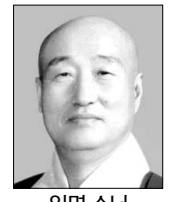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총회 보궐선거 중앙선관위원장에 범여 스님

조계종 제13대 중앙총회의원 직능대표 보궐선거 결과 일면 스님과 정도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범장)는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교육 분야에 일면 스님을, 행정 분야에 정도 스님을 선출했다.

일면 스님은 1964년 사미계, 6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포교원 포교부장, 총무원 사회부장,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교육원장, 남양주 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76년 사미계, 79년 구족계를 수지한 정도 스님은 보은 법주사 교무국장, 중앙경향학교 경승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열린 제11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전 위원장 지명 스님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새 위원장으로 범여 스님(교장 선운사 주지)이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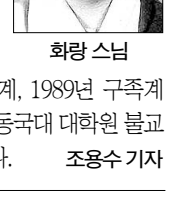
일면 스님, 정도 스님, 범여 스님

교육부장 현관·불학연구소장 화랑 스님

조계종 교육원 인사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6월 9일 교육부장에 현관 스님, 불학연구소장에 화랑 스님(중국대 강사, 교육국장에 정범 스님(총무원 기획국장), 연수국장에 지인 스님(순천 제일대 교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철우 스님 등을 임명하는 교역직 인사를 단행했다.

새 교육부장 현관 스님은 1974년 사미계, 197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1996년 교육원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화랑 스님은 1969년 사미계, 1974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미 시카고 불타사 주지를 지냈다. 정범 스님은 1988년 사



현관 스님, 화랑 스님, 정범 스님

용천참사 희생자 왕생극락 염원

진각종·조불련, 묘향산 보현사서 합동법회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 등 대표단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초청으로 6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6·15 공동선언 실천과 용천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법회를 열었다.

6월 3일 오후 2시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된 합동법회는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타종을 시작으로 효암 통리원장, 수성 재무부장, 회성 문화사회부장, 증광 사각부장, 호담 기획국장 등 진각종 대표단 6명과 황병준 조

불련 부위원장, 심상진 서기장, 차금철 스님, 최형민 보현사 주지 등 사부대중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는 이날 합동법회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고 조국을 통일하는데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효암 정사는 “지난 4월 용천역 참사 희생된 영령들의 왕생극락과 부상자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어 심상진 조불련 서기장은

에 관한 각종 종단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태고종 89회 임시총회

전승관 건립등 안건

태고종 제89회 임시중앙총회(총회회장 인공)가 6월 15일 오전 11시 신촌 불원사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개정안 △총법 개정안 △총법 제정안 △2003년도 종단 세입세출 결산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 건립 성금 모금 및 예산 조정 △종단간 부인준안 등 종단 주요 현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는 종단의 숙원사업인 전승관 건립, 1사찰 1선행운동, 녹색장묘개발사업 등

“진각종 57돌 창교절 축하”

조불련, 메시지 보내

진각종 창교절(6월 14일) 57돌을 앞두고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이하 조불련)이 6월 8일 통리원장 효암 정사 앞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조불련은 박태화 위원장 명의의 축하메시지에서 “창종 57돌을 맞이하는 진각종 전체 법우들에게 조불련과 북녘 불교도들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규준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내가 외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다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지음 | 양장 | 값 9,800원

깊은 사유의 언어와 맑은 영혼의 소리!
 <오두막 편지>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법정 스님의 신작 산문집!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도 묻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홀로 일 때 비로소 세상에 살면서도 늘 이웃사이터로 있으리라. 홀로 있을 때 완벽한 생동과 협동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 훌쩍 넘어 나를 깨우는 밝은 빛

풍경소리2

오늘

오늘도 신비의 샘인 허무를 맞는다.
 이 허무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관객 웅담샘에 이어서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서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서 바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구성 / 시인

풍경소리는 산사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복잡한 도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글·풍경소리 | 진각·정병래 | 윌렐러 | 값 8,000원
 * 책을 구입하시면 금장 책갈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www.isamto.com
 도서주문 및 문의 080-763-8961 (02)763-8961-6